

2014 갑오년(甲午年)

용진군의회
의정소식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옹진군의의회



표지설명 : 대청면 독바위

C O N T E N T S

	제7대 전반기 옹진군의의회 의원 구성 현황
	사진으로 보는 의정
	통계로 본 의정활동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옹진군의의회 결의안 채택 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
	2010년 하반기 ~ 2011년 전반기 주요 언론보도사항
	2014년도 각 면별 도시방문

「옹진군의의정소식지」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성함과 받아보실 곳,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우 편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6층 의회사무과

-전 화 : (032)899-3030 / 팩스 : (032)899-3039

-인터넷 : 인천광역시 옹진군의의회 홈페이지(<http://www.ongjin.go.kr/council>)

제7대 용진군의회 전반기 의원 구성현황

용진군의회는 7월 7일 제7대 용진군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제174회 임시회에서는 제7대 의회 제1기 의장단 선출이 주요안건으로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기 의장으로 김형도 의원, 부의장으로 백동현을 선출했다.

김형도 의장은 개원사에서 “오늘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속에 제7대 용진군 의회가 개원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 의원 모두의 포부와 열정을 믿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버팀목과 디딤돌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원본사진 별첨’

|의장 김형도

‘원본사진 별첨’

|부의장 백동현

‘원본사진 별첨’

|의원 김기순

‘원본사진 별첨’

|의원 김성기

‘원본사진 별첨’

|의원 신영희

‘원본사진 별첨’

|의원 장정민

‘원본사진 별첨’

|의원 최성일

의정스케치

제7대 응진군의의회 개원식

지난 7월 7일 응진군의의회는 제7대 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개원식을 갖고 김형도 의장과 백동현 부의장을 비롯한 김기순 의원, 김성기 의원, 신영희 의원, 장정민 의원, 최성일 의원이 힘을 모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해운조합 방문

응진군의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7월 8일 한국해운조합을 방문하여 선사대표들과 함께 세월호 사건이후 여객선 운항의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섬주민들의 해상교통 이용불편과 선사간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 방문

지난 7월 19일 연안여객터미널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방문함에 따라 응진군의의회 의원 일동은 섬주민들의 수화물 규제와 해상교통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 정 스 케 치

공립 덕적어린이집 개원식



지난 7월 31일 『공립 덕적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한 응진군의회 김형도의장, 김성기, 신영희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꿈과 희망이 있는 응진을 만들어 가는데 주역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과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응진군장학재단 공로패 수상



지난 8월 8일 응진군장학재단 1차 임시이사회가 개최된 가운데 인재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장학재단의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조운길 군수로 부터 최성일 의원이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제41회 응진군민의날 기념식



지난 9월 15일 응진군의회 김형도의장은 제41회 응진군민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모든 주민들이 협동과 단결로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예전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응진을 이루어 낸 것을 치하하며 화합하고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의 정 스 케 치

주요사업장 및 민생현장 방문



지난 9월 17일 용진군의회 의원일동은 영흥면 도
서방문을 실시하여 주민숙원사업 현장 및 시
설공사 현장을 현지 점검하고 완벽한 시공을
당부하였다.

용진군장학재단 공로패 수상

제41회 용진군민의날 기념식

통계로 본 의정활동

1 회 기

- 제174회 용진군의회 임시회(2014. 7. 7.~ 7. 14. / 11일간)
- 제175회 용진군의회 임시회(2014. 8. 5.~ 8. 8. / 4일간)
- 제176회 용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2014. 9.29.~ 10.20. / 22일간)
- 제177회 용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2014.11.25.~ 12.18. / 24일간)

2 회기운영

- 개최횟수 : 4회(정례회 2회, 임시회 2회)
- 회의일수 : 128일(정례회 46일, 임시회 15일)

3 의안처리현황

구 분	발의·제출			의 결				철회
	계	의원	군수	원안	수정	부결	보류	
총 계						-	1	-
조 례	소 계	6	53			-	1	2
	제 정	2	26			-	-	2
	개 정	3	26					
	대 안	1	1	-		-	1	-
	폐 지	1	-	1	1	-	-	-
규 칙	3	3	-	3	-	-	-	-
예 · 결 산	9	-	9	6	3	-	-	-
기타안건(결의안)	4	4	-	4	-	-	-	-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 : 50건)

회 기	기 간	주요안건	심의결과
제174회 임사회	2014.07.07. ~07.14. (11일간)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제175회 임사회	2014.08.05. ~08.08. (4일간)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옹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의결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원안의결		
제176회 제1차 정례회	2014.09.29. ~10.20. (22일간)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현황

회 기	기 간	주요안건	심의결과
제176회 제1차 정례회	2014.09.29. ~10.20. (22일간)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원안의결
		옹진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원안의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
		북도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철회 결의안	원안의결
제177회 제2차 정례회	2014.11.25. ~12.18. (24일간)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현황

회 기	기 간	주요안건	심의결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

제150회 제1차정례회 군정질문



의원 백종빈

바지락 폐사 원인 규명 및 대처방안 마련 촉구

Q

● 응진군은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만큼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며, 매년 종패살포 사업으로 주민향상에 많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약 3년 전부터 바지락 폐사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바지락을 거의 채취할 수 없어 많은 어민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실정임.

● 바지락 폐사 및 어장 황폐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장을 복원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관측 전문가를 통해 조사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근래 우리군 지역에는 해양환경의 변화로 바지락 등 패류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바지락 주 생산지인 영흥도 지역에서 바지락이 많이 폐사하고 해적생물인 쪽이 대량 번식되어 어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지난 4월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에 조사의뢰하여 선재어촌계 어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바지락 폐사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서해안 일대 바지락 양식장 전역에 걸쳐 폐사가 발생되고 있으며, 가장 큰 요인은 봄철 기상변동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어장환경 개선 및 자원량 증대를 위하여 바지락 종패살포, 양식장 모래살포, 어장 경운작업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해적생물인 쪽을 제거하기 위해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장환경 복원을 위해 서해수산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소득원 확보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Q

- 영흥면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주말 및 피서철에 많은 관광객과 레저보트 이용객들이 찾아와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해양 레저관광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여 요트나 보트시설을 접안할 수 있는 마리나항을 설치하여 국제요트대회를 유치함은 물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함.
- 선재리 넷출항은 수심이 깊고 약 2,800평의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여객선이 다니는 선착장과 작업선창 등이 있었지만 현재 시멘트로 된 TTP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사용한 오수들이 바닷가로 흘러들어가 어장은 물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바,
- 선재 넷출항의 TTP생산 대신 레포츠항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A

- 현재 선재항은 우리군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매년 발주되는 열 개 이상 사업장의 방괴블럭, TTP(테트라포트), 인공어초 등 구조물 제작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인공어초시설 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제작장은 발주처에서 제공하게 되어있으나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나마 구조물 선적 등을 감안할 때 선재항이 유일하며, 제한적으로 인천 남항부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제작장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물 제작시 시멘트로 인한 바닷가 오염 문제는 거푸집 등을 견고히 설치하여 시멘트물이 해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어장 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아울러, 해양레저문화 확산 및 관광객 증가를 감안하여 마리나항 조성에 필요한 적정부지 선정 타당성 용역과 마리나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동 예산이 확정되면 김기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어바위 지역 등을 포함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성과결과가 나오면 마리나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Q

● 옹진군의 주민 대부분은 영세 농업인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소득 작물 재배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는 시범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작물의 시험재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지도관들과 농민들이 합심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목들을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시범포를 만들어 주실 계획은 없는지?

A

● 우리 군에서는 현재 백령면 솔개지구 간척지 일부에 잠곡류와 툼림·나리·국화 등 경관작물포장과 포도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는 포장 없이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안으로 농촌진흥청 작목 연구소와 시험장 등을 연계하여 신품종과 새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연중 교육과 시험재배를 통한 특화작목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2007년도 영흥면 13개리 이장단이 주민숙원사업 대상으로 장경리 해수욕장에 잠제식 수영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2008년도에 농림수산부와 해역 이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음.

● 잠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영흥면은 서해안의 명소로 거듭나는 동시에 관광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영흥면 장경리 해수욕장 잠제시설 설치에 준비 재원인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A

● 장경리해변 잠제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2009년 인천시 특용자 심사를 받아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해양오염 우려 및 지원 관련법 미반영 등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경리 해변이 서해안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변인근 마을에서 유입되는 오폐수의 정화처리 문제 해결과 자연생태계 변화 대책 등 다방면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타 지자체 사례를 주민과 함께 현지 견학하고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추진 방향 설정과 재원투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순

수산물 운반비 지원

Q

-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물류에 소요되는 택배비의 60%를 농민에게 보조 지원해주지만, 수산물의 경우에는 패류 등의 판매소득으로 살아가는 영세어민들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바,
- 영세어민들의 택배운반비를 60%를 지원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서해5도서의 경우 운반선이 없어 여객선에 의존한 수산물 운반으로 물류비가 과다 소요됨으로써 이러한 비용이 출하비용 가중과 소비자 구입가 상승으로 이어져 판로확대 저해 및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로 백령, 대청지역에 운반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타 지역의 패류 생산 영세어민들에게 택배운반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향후 수산물의 생산량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Q

- 자월면은 여름 관광철에는 쾌속선이 2회 왕복하지만 비수기에는 1회만 왕복하고 있는 바, 팸투어 사업 효과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운항횟수가 적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자월면 여객선 운행을 1일 2회 왕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현재 자월 항로는 비수기 평일에는 쾌속선이 1회 왕복 운항하며, 주말에는 2회 왕복 운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고속 카페리호가 비수기에도 인천⇄자월간 1회, 대부⇄자월간 1회 운항하고 있어 사실상 비수기에도 평일 3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자월면 항로는, 해당 여객선사가 여객선 운항에 있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항로가 아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항로이므로 선박 운항횟수 증편은 해당선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최근 유가의 급등으로 선사에서도 관광철이 아닌 비수기에 쾌속선 평일 2회 운항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객선 이용 수요가 급증할 시에는 해당 선사와 협의하여 1일 2회 운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

● 영흥면 장경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으로 2001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전라남도 해남군의 '블랑크비치'는 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 해수욕장을 만들었으나 갯벌이 쌓이고 해양이 오염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개장을 취소하고 감사원으로부터 부적합 투자사업으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양개발 제한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중단되어 영흥면민 모두가 실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의 대안으로 내6리의 농어바위 쪽에 마리나 항을 조성하여 요트와 레저보트 관광객을 유치하고 용유도와 카페리호를 운항토록 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영흥면 내6리 농어바위 지역에 마리나 항을 조성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관내 지역 마리나항 조성사업은 천혜 해양자원이 풍부한 우리군의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해양관광 레저산업 육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리나항 조성은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지정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마리나항 조성에 필요한 적정부지 선정 타당성 용역과 마리나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으며 용역을 통하여 타당하다는 성과결과가 나오면 마리나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Q

- 영흥면은 연육화 된 이후 수도권에 인접하다는 지리적 장점과 주 5일제 근무의 실시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볼 거리와 먹을 거리 등의 위락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영흥면 진두항과 용담리 해변을 매립하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는 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영흥화력발전소의 7, 8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진입하는 도로가 진두항과 용담리 해변을 우회하도록 주민들이 건의한 바 있으며, 사업 시행시 남동발전주식회사와 협력한다면 사업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영흥면 진두항과 용담리해변을 매립하여 관광 위락단지를 조성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영흥면 진두항과 용담리해변에 관광위락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단지조성에 필요한 면적규모가 협소하여 공유수면 매립 또는 주변 지역 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영흥면의 경우 매립비용 및 토지거래 가격이 매우 높아 단지 조성 시 막대한 사업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주로 국가나 광역지자체의 경우에 한해 인가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군 단위 사업으로의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과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김성기

지역창생을 위한 실천 전략 수립

Q

● 지역을 창조적으로 재생시킴'을 뜻하는 '지역창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군은 도서 접경지역인 동시에 생산자원의 부족 등으로 정주 매력도가 낮아 지역창생으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웅진섬 나들이, KBS 전국 노래자랑 유치 등 군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으나,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하는 진흥 전략에 부족한 점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 소셜네트워크 및 취미단체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과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창조적인 실천 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2010년 관광홍보 효과 조사 및 향후 전략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옥외LED, 지하철, 방송광고 등의 예산집행 대비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은 홍보매체를 배제하고 '1박2일', '체험 삶의현장'과 같은 PPL, 소셜네트워크(SNS), 축구장, 야구장, 코마케팅(Co-Marketing) 등을 활용한 저비용 홍보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부터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적극 활용하여 소셜네트워크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뿐만 아니라, 긍정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 팔로워가 2,000명을 넘어섰고, 트윗은 600개에 가깝게 업로드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2012년부터는 블로그 및 트위터 등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웅진군 관광홍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SNS매체 활용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Q

● 지역발전의 고유시책을 전개하려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기획하고 체제를 구축시키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지역 리더와 지역의 핵심인재 양성, 그리고 이를 혁신적으로 준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군에서는 준정의 최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이장님, 부녀회장님, 자원봉사센터 면 지소장님들을 대상으로 매년 워크숍을 실시하여 활동 역량을 제고해 드리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여 민·군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응진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매년 중·석식비를 포함한 교육경비보조금 11억원 이상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2007년부터 각 면에 외국어 회화 강사를 파견하는 「응진 “섬” 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응진군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61억원의 이자수입으로 369명의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5억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지역에 장학관 설립을 통해 학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등의 인재양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혁신적 준정수행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는 5급 면장 승진의결 시 승진리더과정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군민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팀장의 경우 매년 2명을 선발하여 핵심리더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중견간부를 양성하고 있으며, 응진 아카데미와 공직자 대상 친절·청렴 등 보수교육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혁신적 마인드 함양 및 아이디어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실적가점 및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준정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지역브랜드는 지역 모두가 일체가 되어 지역의 이야기, 경관, 명물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며, 주민이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는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수산물, 향토음식, 관광명소 등 지역브랜드 개발 육성으로 지역 창생을 이룰 실천전략이 있는지?

A

● 그동안 "섬나라 옹진"과 "옹해(海)야"라는 농·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하여 포장용기를 규격화하고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과 관광이미지 제고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수준 향상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관광지를 찾는 고객의 욕구가 커지면서 파워브랜드 육성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했지만 우리군의 농·수특산물과 무형자산에 대한 지역브랜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하이 서울"과 같은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고 홍보해서 소비자의 잠재의식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과 특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삼 섬단지 조성, 까나리액젓 명품화, 꽃게 특구 조성, 마리나 시설, 들레길 확충 등으로 해양과 산림자원, 문화와 생태 그리고 레포츠를 결합한 지역브랜드가 향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또한, 국내최초로 매크로 바이오틱을 응용한 청정옹진 7미(味)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특색 있는 맛집을 확대해서 먹거리 문화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농·수산물 포장용기의 디자인과 포장방법을 고급화하고 다양화해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농·수산 특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 만의 특성화된 지역브랜드와 창생으로 풍요로운 섬으로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형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Q

●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그 논리로 행정 서비스와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조화로운 지역 개발, 지방자치 단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감소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지역개발 및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불필요한 갈등 감소 등의 주장 아래 이루어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각 자치 단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와 면적, 생활력, 재정력 등으로 평가된다면, 도서 지역으로 구성된 데다가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은 우리 응진군은 자원배분 감소와 관심 부족으로 소외되고 낙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규모의 경제로만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및 지역화합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추진 계획은 도서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및 일정 수 이상의 주민건의서로 의견을 접수 하여 통합방안을 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과 관련하여 군 측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통합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지방행정체제개편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0월 제정되어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1년 2월 출범하여 개편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편위원회 계획은 금년도 11월과 12월 중에 합의된 지자체에 대하여 통합건의서를 접수하고 2012년 6월에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 6월에 개편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주로 인구수 기준에 의한 타 지자체로 강제 통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밀도가 낮은 우리군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기준에 의한 통합은 절대 반대하며 강제통합 시 우리군은 지금도 소외받고 있는데 더욱더 소외된 지역으로 우리군민들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심히 우려되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리군의 확고한 반대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유순일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접근

Q

● ‘관광’은 물적 인프라와 함께 여유와 휴식이라는 요소도 포함되어 구성되는데, 이러한 종류의 관광자원으로는 제주도의 올레길과 슬로 시티가 있을 것입니다. 제주 올레길의 주된 사업은 걸기에 불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며, ‘귀’와 ‘눈’이라는 이미지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군에 적용해보면, 해안 지역을 따라 산길과 들길·해변길을 연결하고 이미지를 부여해 홍보하는 것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내 8개 지역에 지정된 슬로시티(Slow city)의 지정조건은 인구 5만명 이하, 패스트푸드나 유전자 변이 음식의 거부, 자전거 도로만 들기와 같은 것으로, 이는 당일 관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숙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관내 관광업 종사자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자변이 조작이 되지 않은 작물 재배지’ 나 ‘슬로우푸드 지역’ 자체도 의미있는 관광 상품이 되고 있는 시대이며, 천혜의 관광자원과 2,000만명의 잠재적 소비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적극 고려해 볼만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 관광 자원개발 정책으로 무인도와 연계하거나 적정 지역에 올레길이나 슬로우 시티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자원 개발접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최근 슬로우푸드, 슬로우시티 등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자연음식 등을 즐기면서 자유로운 옛날의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것이 “올레길”입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등산로, 해안산책로 등을 조성해오고 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조성사업비 확보와 개인소유의 토지사용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도보여행길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어족자원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소연평 해역을 포함한 14개 해역에 11개 종류의 어초가 설치 또는 예정되어 있으며, 국비 7억 1천 5백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6억 3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개당 가격이 200만원에서부터 수천 만원에 이르는 인공어초는 투여 전 주변 생태와 토질 등의 적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깊은 경우 40~50m 이상까지 가라앉아 사후 영향평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능동적으로 어족 자원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인천시에서 2 ~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어초어장 관리사업과 병행하여 그 효과는 검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어류나 조류 등의 동태를 영상으로 확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한다면, 인공어초 시설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연 평균 40여억원의 사업비는 우리 군의 재정규모로 볼 때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므로, 금년도를 포함해 향후 인공어초시설의 사업효과 검증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우리군에서는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국·시비 지원 및 수산자원조성금을 활용하여 석괴투하 및 인공어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 검증을 위해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라 인천시에서 우리군 투하분까지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어획량 증가, 출현생물, 폐기물 등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장관리사업 및 효과 조사시 대부분의 어초시설 해역에서 수산자원조성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 향후에도 점진적인 확대설치 건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어업인 등과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사전 적지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시설 후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Q

● 농업기계 대여은행은 2010년부터 연 1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백령면에 4억 5천만원의 구입비로 47종, 총 187대의 임대용 농기계를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영흥면을 대상으로 6월 30일 현재 24종, 총 52대의 농기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기종이 밭농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논농사 농가에는 정책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의 형평성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기계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계 대여 은행의 운영 개선방안과 금년을 포함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이 추진하는 벼농사 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에서 추진하는 트랙터, 콤파인 등 논농사에 필요한 대형동력기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 농협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소형동력기를 구입·임대 하도록 하여 농업인들이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다문화·보훈가족 및 영세농가에는 무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장정민

백령~대청간 차량선적 운임비용 개선방안 및 연안화물 운송요금 지원

Q

●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물류비 절감은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백령-대청 간 차량 운반비용을 비롯한 화물요금 인하 등의 조정 및 지원 방안과 도서지역의 화물 운송 요금 및 운송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울릉군이나 심지어 제주도와 비교해보면 우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차량 운임은 최대 30%까지 높은 실정으로, 향후 2,500톤급 선박이 취항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운임이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이용주민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백령~대청간 차량선적 운임 비용 개선 및 지원과 연안화물 운송요금에 대한 지원 등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A

●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법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내항 화물운송 사업의 경우 운임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백령~대청 간 차량선적 운임 비용 및 연안 화물 운송 요금이 적정요금으로 인하 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및 선사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도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Q

● 지리적,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백령도를 비롯한 여러 도서들은 장마철이나 짙은 안개가 끼었을 경우 통신장애로 인하여 주민들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며, 각종 민원서류 발급 지연 및 금융기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과가 미미한 바, 우리군은 이제 지역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 부처와 관계기관에 시설확충 및 예산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선전화를 비롯한 휴대폰과 인터넷 등의 통신장애 해소방안과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실천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먼저, 통신장애 해소방안입니다. KT를 비롯한 통신3사, 인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기간통신망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합동 참모본부 주관 하에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근본적인 기간통신망 장애 해결을 위해 육지와 서해5도서 간 해저광케이블 구축사업을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중앙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와 협의결과 경제성이 낮고, 기술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위성방식 백업망 구축 및 마이크로웨이브(M/W)회선을 증설하는 등 서해5도 통신망 품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군 지역정보화 촉진 실천계획으로 2010년 11월에 옹진군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민 정보화 관련 주요 사업으로 주민정보 이용실 활성화와 매년 주민교육, 사랑의 PC무상수리 사업 및 사회복지관의 정보화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 하여 교육참여율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고쳐주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부서별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	비고
계	38	1	3	34	
기획실	3	-	-	3	
주민생활지원실	4	1	-	3	
관광문화과	2	-	1	1	
해양수산과	2	-	-	2	
도서개발과	4	-	-	4	
지역경제과	6	-	-	6	
환경녹지과	7	-	1	6	
건설재난과	2	-	-	2	
재무과	2	-	-	2	
자치행정과	2	-	1	1	
보건소	1	-	-	1	
농업기술센터	3	-	-	3	

2010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 시정요구 사항

소관부서	제 목	비 고
계	1 건	
주민생활지원실 (1건)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공부방 분리 운영	

□ 처리요구 사항

소관부서	제 목	비 고
계	3건	
관광문화과 (1건)	팸투어 활성화 및 확대 운영	
환경문화과 (1건)	백령면 진촌리 하수종말 처리장 보수 철저	
자치문화과 (1건)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 · 보강 및 부대시설 보완	

□ 건의 사항

소관부서	제 목	비 고
계	34건	
기획실 (3건)	조례 및 규칙 제정 내실화	
	웅진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철저	
	예산 조기집행 사업 지양	
주민생활지원실 (3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백령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 확대	
관광문화과 (1건)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철저	
해양수산과 (2건)	어업지도선 직원 복지 증진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사업 확대	
도서개발과 (4건)	영흥 선재리 축제식 양식장 시설보수 철저	
	산지전용 허가시 공정한 업무 수행	
	빈집정비 사업 보조금 증액	
	도시관리계획 확대 추진	
지역경제과 (6건)	자월, 덕적 여객노선 동절기 증편 운항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 및 사업 분야 창출방안 강구	
	농어촌주택 태양열 설치 지원사업 확대	

소관부서	제 목	비 고
지역경제과 (6건)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	
	공영주차장 시설 확보	
	화물선 운항 증편 추진	
환경녹지과 (6건)	수목 종묘 배양장 운영	
	대청도 선진물량장내 공중화장실 설치	
	상·하수도 정비공사 합동 발주	
	1회용품 미사용 업소 점검 실시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하수도 정비사업 대상지 확대	
건설재난과 (2건)	농어촌 도로 및 농로 지정 확대	
	도로편입 민사소송 패소비용 주민부담 해소방안 마련	
재무과 (2건)	수의계약 제도 개선 추진	
	건설사업 관련 주민 금전피해 해결 대책 마련	
자치행정과 (1건)	지역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보건소 (1건)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복무관리 및 지도 점검 철저	
농업기술센터 (3건)	옹진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친환경농산물 사업 확대	
	관광농업 활성화 사업 확대	



2010년도 용진군의회 채택 결의안

2011년도 5분 자유발언

『골업도 개발과 관련한 제언』

의원 김성기

● 김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최영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정성을 다하여 삶을 개척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골업도 개발과 관련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우선, 골업도 관광단지 개발주체인 씨앤아이레저산업에게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홍익경제연구소의 골업도 관광단지 개발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골업도는 수도권외 배후로서 타 지역 어느 해양관광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접근성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지역사회의 이득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므로 더 이상 골프장 건설에 발목이 잡혀 사업전체를 망가뜨리는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에 초점을 맞춰 관광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내외 해양개발 추세에 맞는 추진과 인천 섬 개발의 새 모델을 제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지난해 취하한 관광 단지 지정 신청을 다시 준비하고 있으며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적극 찬성하는 굴업도와 덕적군도 주민들의 입장과 이를 무시하고 있는 환경단체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역의원으로서 깊은 우려와 함께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군민과 함께 응진군의회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탬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씨앤아일랜드저산업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 다음은 인천광역시와 관련기관에서는 각종 행정처리와 협조제공 등을 보다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굴업도와 덕적도 주민의 95%이상의 찬성 의견을 담아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오는 12월에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2012년 공사를 시작해 2014년 아시안게임에 활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15개 환경단체가 인천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대 여론으로 인천광역시가 난처한 입장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사업주체 측을 보면 개발반대 인사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소홀했으며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현재, 우리군은 휴양레저시설과 민간기업 등이 없고 어족자원 고갈과 해상교통 불편 및 연평도 포격 등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지역경제가 공황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도서주민들에게 굴업도 오션파크 개발운영의 후광효과 등을 통하여 인천의 자랑스런 관문이자 수도권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주 의식 제고를 위하여 개발과 보존 중에 실질 효과 측면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발 반대론자들은 굴업도에 골프장 등이 건설되면 먹구렁이와 매, 애기뿔 소똥구리 등 천연기념물이 사라

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섬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이고 반생태적인 개발 이어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골프장을 건설하더라도 산지지형을 살려서 절·성토량을 조절하고 천연기념물의 생태보전지역을 지정 보호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여 친환경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지역사회의 이득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 본 의원도 굴업도에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주변도서 및 인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외국의 유사한 관광휴양지를 돌아볼 때마다, 찬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이 떠올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방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후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외부인사와 환경단체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뜻이 무시된 채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주민과 함께 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 다시 한번, 씨앤아이레저산업에게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개발반대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및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와 투자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민간기업의 공생발전체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경단체들의 폭 넓은 이해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5분 자유발언



의원 장정민

『대형여객선의 서해5도서 취항 요청』

●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영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가정과 일터에서 정성을 다하여 복된 삶을 개척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벅차오르는 감동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서해최북단에 위치한 서해5도서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등 계속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따른 관광객 급감 및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지역경제가 황폐화되어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노후화 되고 소형인 관계로 잦은 고장과 조그만 기상 변화에 따라 연간 80여일을 운항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대형여객선의 서해5도서 취항을 위해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리 옹진군의회는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먼저, 신규 운항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연안여객면허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신청과 취항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승선 및 적취율이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해5도 항로에 신규업체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서해5도서만의 지역특수성을 인정하고 사업항로의 성격에 따라 수송수요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면허를 신청할 때, 이미 운항되고 있는 여객선보다 향상된 여객선으로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제약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 다음은, 서해5도 평화지대 구축을 위해 대형여객선의 운항을 위한 국·시비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해5도서의 정주여건과 도서관광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사접경지역으로 국가발전이 소외되었던 서해5도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국고지원항로가 아닌 서해5도서를 운항하는 기존선사들도 대형여객선 도입에 공감하고 있으나 무리한 운영비 지원요구 등으로 소요비용이 과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과점 항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서해 5도서에 대형여객선이 조속히 운항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정성을 다한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대형여객선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서해5도에 대형여객선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관련부처와 선사간 협의 지연 등으로 운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과 관광객 대부분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지금까지 군민과 함께 최북단 안보 전초기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자긍심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 다시 한번, 군민과 함께 응진군의회는 강력하게 서해5도서 대형여객선의 조속한 운항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각 면별 도서방문

(현안사항 10건, 건의사항 : 10건)

2010년도 응진군의회의원 도서방문

-일 시 : 2010년 연중

-방문지 : 영흥면,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면 별	방문일시	건의 및 현안사항	비 고
영흥면	2010.09.07.	○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발생(현안) ○ 십리포·장경리 해수욕장 운영보고(현안)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관련 주민동향(현안) ○ 영흥화력 7·8호기 건설관련 사항(현안)	현안4건
북도면	2010.09.09.	○ 항공기 소음측정결과 용역(현안) ○ 수기해변 주차장 확보(건의)	현안1건 건의1건
덕적면	2010.10.04.	○ 덕적면 청사부지 매입 추진상황(현안) ○ 인천524호 주 기관 교체(건의)	현안1건 건의1건
자월면	2010.10.05.	○ 자월면 작은도서관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건의)	건의1건
연평면	2010.10.06.	○ 연평면 향만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사업(건의)	건의1건
백령면	2010.11.03.	○ 2010년 공공비축미곡 수매량 감소(현안) ○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따른 백령면 어민 피해(현안) ○ 서해5도서(백령면) 긴장고조(현안) ○ 농업용 관정 신설 및 농경지 복토 건의(건의) ○ 두무진항 TTP 보강공사 건의(건의) ○ 사항포항 석축 유실에 따른 보강사업 건의(건의) ○ 장촌 용트림바위 전망대 화장실 신축(건의)	현안3건 건의4건
대청면	2010.11.04.	○ 중국어선 침범 어구분실 피해(현안) ○ 군도8호선 아스콘 포장 건의(건의) ○ 분바위 진입도로 보강 건의(건의)	현안1건 건의2건

2011년도 각 면별 도서방문

(현안사항 10건, 건의사항 : 41건)

2011년도 응진군의회의원 도서방문

-일 시 : 2011년 연중

-방문지 : 백령면, 대청면, 영흥면,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 북도면

면 별	방문일시	건의 및 현안사항	비 고
백령면	2011.06.07.	○ 산림병해충(솔잎혹파리) 발생에 따른 피해(현안) ○ 북포~남포지구 농업용수 관련 시설 설치(건의) ○ 소규모 저류시설 설치 공사(건의)	현안1건 건의2건
대청면	2011.06.08.	○ 옥죽포 노천 쓰레기 매립장 정비추진(현안) ○ 어선출어 통제 완화 및 출어 관리 일원화(현안) ○ 대청면사무소 청사환경 개선(건의)	현안2건 건의1건
영흥면	2011.06.10.	○ 영암어촌계 피해보상 추진 현황(현안) ○ 영흥일원 바지락 폐사원인 및 대책(현안)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관련 주민 동향(현안) ○ 영흥화력 7·8호기 건설관련 사항(현안)	현안4건
연평면	2011.06.13.	○ 연평어장 꽃게 조업기간 연장 및 금어기 조정(현안) ○ 소연평 마을 내 토지 일제 정리(건의) ○ 소연평 무허가 주택 일제 정리(건의) ○ 소연평 종선 수리(건의) ○ 소연평 보건 진료소 신축(건의) ○ 소연평 거주 학생 대학입학 혜택 부여(건의) ○ 소연평 항구 준설 및 물량장 확보(건의) ○ 소연평 어민 2~3평 활어장 지원(건의) ○ 소연평 광산 부두 어선 접안시설 설치(건의) ○ 소연평 고구마 저장 시설 지원(건의) ○ 소연평 폐교부지 대피호 건설 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건의) ○ 서해5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10가구 건축 후 항구 및 마을전체 이전(건의)	현안1건 건의11건

면 별	방문일시	건의 및 현안사항	비 고
덕적면	2011.0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 헬기 이·착륙장 설치(건의) ○ 덕적도 운동장 부지 추가 확보 대책(건의) ○ 굴업도 차도선 접안을 위한 선착장 보수(건의) ○ 백아도 마을안 소하천 보수(건의) ○ 백아도 공중화장실 신축(건의) ○ 백아도 호안도로 보강공사 조속 시행(건의) ○ 백아도 차도선 운항 시 학교마을과 부대마을 접안 요청(건의) ○ 울도 마을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건의) ○ 울도 상수도 관로 누수구간 보수(건의) ○ 지도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건의) ○ 문갑도 낙뢰피해 방지를 위한 피뢰침 설치(건의) ○ 문갑도 토탈빌리지 사업을 통해 시행중인 수도관로 가정까지 매설 요청(건의) ○ 문갑도 개인 집 화장실 정화조 설치 지원(건의) ○ 문갑도 어장관리선 건조 요청(건의) ○ 소야도 물 부족에 따른 상수도 관정 개발(건의) ○ 소야도 턱골 버스 승강장 설치(건의) ○ 소야도 턱골 소하천 보수(건의) ○ 소야도 찜질방 및 목욕탕 신설(건의) 	건의18건
자월면	2011.0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월1리 농경지 및 주택가 상습침수 해결(건의) ○ 자월2리 임도(등산로) 포장 건의(건의) ○ 자월3리 변난금~진모래 구간 임도 개설(건의) ○ 소이작도 벌안해수욕장 모래포설 시급(건의) ○ 대이작 마을 공영버스 지원(건의) ○ 승봉리 부두치 해안산책로 촛대바위까지 연장(건의) 	건의6건
북도면	2011.0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3·4리 공설묘지 공원화사업(현안) ○ 무면허양식시설 주민동향(현안) ○ 옹암항 정비공사 준설토 매립(건의) 	건의3건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활동 사항



09.04.16. 도서민 면세 난방유 공급
관련 국회방문 및 건의

09.08.18. 웅진군 간담회

09.11.17.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진 창립식

웅진군 의회가 주축이 되어 전국 도서지역 15개 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들로 구성돼 활동 중인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지난 09년 2월 인천 웅진군민, 경북 울릉군민, 경남 통영시민, 전남 신안군민 등 총 7,520명의 연대 서명으로 “도서주민 난방유 면세 공급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올려 도서민들의 딱한 처지를 읍소한데서 시작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도서주민의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박상은 국회의원 외 10인에 의해 발의되어 이들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일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 수준이 낮고 노령 인구가 많은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가 난방유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 연 평균 230억원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전기장판 등에 의존하여 동절기를 어렵게 나던 주민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될 것이다.

도서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난방유 면세 공급 방안마련 외에도 ▶의료시설 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주거환경 개선 ▶해상교통 여건 개선 등 도서 공통 현안사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및 전국 도서 자치단체를 방문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당에도 도서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발송하는 등 도서민 권익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협의회는 그동안 국토의 변방에서 수많은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도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서지역간 상생 및 화합을 위한 공동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09년 11월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진바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다함께 동참할 것임을 결의하였다.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활동 사항



09.06.11. 통영시 간담회에
모인 임원진



09.10.23. 완도군 간담회에
모인 임원진



09.11.17. 국회 창립식에
초청된 도서지역 국회의원(고문)

■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임원 현황 ■ 그간의 추진 사항

의 회 명	성 명	직 위
인천 옹진군	의장 김성기	회 장
충남 보령시	의원 편삼범	수 석 부회장
전남 신안군	의원 박삼성	수 석 부회장
경북 울릉군	의장 이용진	수 석 부회장
경남 통영시	부의장 조종대	수 석 부회장
인천 강화군	의장 구경희	부회장
인천 중구	의원 김창복	부회장
경기 안산시	의원 박정호	부회장
전북 군산시	부의장 이래범	부회장
전북 부안군	의장 김성수	부회장
전남 여수시	의원 김명남	부회장
전남 완도군	의장 차용우	부회장
전남 진도군	의원 주만중	부회장
전남 고흥군	의장 함채규	부회장
경남 사천시	의원 이상수	부회장
인천 옹진군	의원 장정민	간 사

일 시	내 용
2010. 2월	옹진군의회 장정민 의원 외 7,519인의 연대 서명으로 국회 청원서 제출
2010.3.13.	박상은 국회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조세특례 제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282회 국회 임시회 제안 및 제 282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회부
2010.4.6.	전국 16개 도서지역 의회 의장에 본 법률안 개정과 관련, 협조 및 홍보 서한문 발송
2010.4.16	전국 9개 의회 16인의 도서지역의장 및 의원단의 국회 방문 및 기획재정위원장, 박상은, 강봉균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2010.4.2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 소위원회 심사 (결과 : 계류)
2010.6.11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통영시 간담회 개최
2010.6.23.	도서민 난방유 면세 공급에 관한 중앙부처 건의서 송부 13곳(청와대,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의 위원회,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 이상득 국회의원)
2010.6.~7.	건의서 회신 : 기획재정부(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유선진당(당 정책국 및 상임위에서 적극 검토)
20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정기 국회 재상정
2010.10.23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완도군 간담회 개최
2010.11.17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창립식 개최(국회 도서관)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상식

♣ 집안의 개미를 없애려면

부엌이나 방에 작은 개미가 자주 생길 경우, 개미가 기어 다니는 통로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며칠 후에 없어진다. 또 개미가 나오는 구멍을 찾아 석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약을 뿌려두는 것도 좋다.

♣ 플라스틱 그릇에 밴 냄새는 채소로

플라스틱 용기에 생선이나 김치를 담아 놓으면 냄새가 밴다. 한 번 밴 음식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좀처럼 가지지 않는다. 이럴 때, 푸른 잎 채소를 잘게 썰어 그릇에 넣고 뚜껑을 덮어 하루쯤 놓아 두면 그릇 안의 모든 냄새가 말끔히 가신다.

♣ 바퀴벌레 잡는 법

집 안에서 간단하게 바퀴벌레 약 대체용품을 만들 수 있다. 붕산을 뿌려 놓는 것이 한 방법이다. 또 우유병 입구에 기름을 바르고 그 속에 생 감자나 김 빠진 맥주를 넣어 두면 바퀴벌레가 냄새에 유인되어 병 속으로 들어간다. 장롱이나 선반 위에 월계수 잎이나 고춧가루를 올려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주전자 속의 물 때는 소금으로

물 주전자를 오래 쓰다 보면 거무스름한 물 때가 끼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스폰지에 소금을 묻혀서 문지르면 간단히 제거된다. 기름 때처럼 끈끈해져 있는 경우에는 중성 세제액으로 닦아도 된다.

♣ 살 속 파고든 발톱 깎으려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이런 발톱은 깎아내려 해도 딱딱해서 깎기가 힘들다. 이럴 땐 탈지면에 식초를 흠뻑 적셔서 발톱 위에 10분 정도 올려 놓으면 발톱이 물러지면서 통증이 멎는다. 또 손톱깎기로 깎아내도 아프지 않고 잘 깎인다.

♣ 각종 냄새제거 방법

- ▶싱크대 : 식초를 희석해 붓는다. 물 반컵에 식초 2큰술 정도가 적당하며, 저녁설거지를 마칠 때 뜨거운 물을 흘려보낸 후 식초물을 부으면 효과가 더 좋다.
- ▶부엌쓰레기 : 차 찌꺼기나 커피 찌꺼기를 못 쓰는 스타킹에 넣어 쓰레기통에 넣어 둔다.
- ▶전자레인지 : 레몬껍질을 넣어 잠시 굽는다.
- ▶냉장고 : 김이 빠지거나 남긴 맥주에 행주를 빨아 닦으면 냄새도 제거되고 더러움도 쉽게 지워진다.
- ▶신발 : 습기찬 신발을 벗은 후 식품에 들어있는 실리카겔을 넣어 둔다. 동전을 넣어도 좋다. 신을 신기 전에는 소다가루를 뿌린다.

♣ 뿌연 유리컵 닦기

유리컵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물로 씻어내도 뿌옇게 되는데 소금에 식초를 섞어서 칫솔에 묻혀 문지르면 깨끗해진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씻어 마른 행주로 닦으면 광택이 난다.

♣ 녹슨 나사 빼기

기름을 한 두방울 떨어뜨리고 다리미나 전기인두의 끝으로 3분쯤 가열하면 열로 인해 틈이 생기고 쉽게 빠지게 된다.

♣ 손에 땀과 냄새 없애려면

과를 다듬고 나면 손에서 과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이 냄새는 아무리 물로 깨끗이 씻어도 쉽게 가지지 않는다. 이럴 때 식초로 손을 씻으면 신기하게도 냄새가 깨끗이 사라진다. 또 우엉뿌리를 요리하고 나면 손에 검은 물이 들어 잘 지워지지 않는 데 이럴 때도 식초로 닦아내고 다시 물로 씻으면 깨끗이 닦인다.

♣ 우유 활용법

윤기를 잃은 금반지, 목걸이, 팔찌가 있다면 미지근한 우유에 10분간 담가뒀다가 물로 헹군 후 수건으로 닦아주면 원래 광택이 살아나며 생닭을 조리하기 전 10분 이상 담가두면 비린내가 나지 않고 육질이 부드러워진다.

♣ 김빠진 콜라 활용법

김빠진 콜라는 변기, 세면대의 묵은 때 제거할 때 좋으며 녹이 슬어 빠지지 않는 볼트가 있으면 콜라를 발라주면 녹이 빠진다.

또한 자동차의 앞 유리가 흐려졌으면 콜라를 발라 닦으면 깨끗하게 된다.

의회 알림 사항

◎의회 방청 안내

의회의 본회의 방청은 일반, 단체, 장기방청으로 구분되며 방청의 허가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교부합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61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하며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 가능합니다.

▶입장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의 제한

-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와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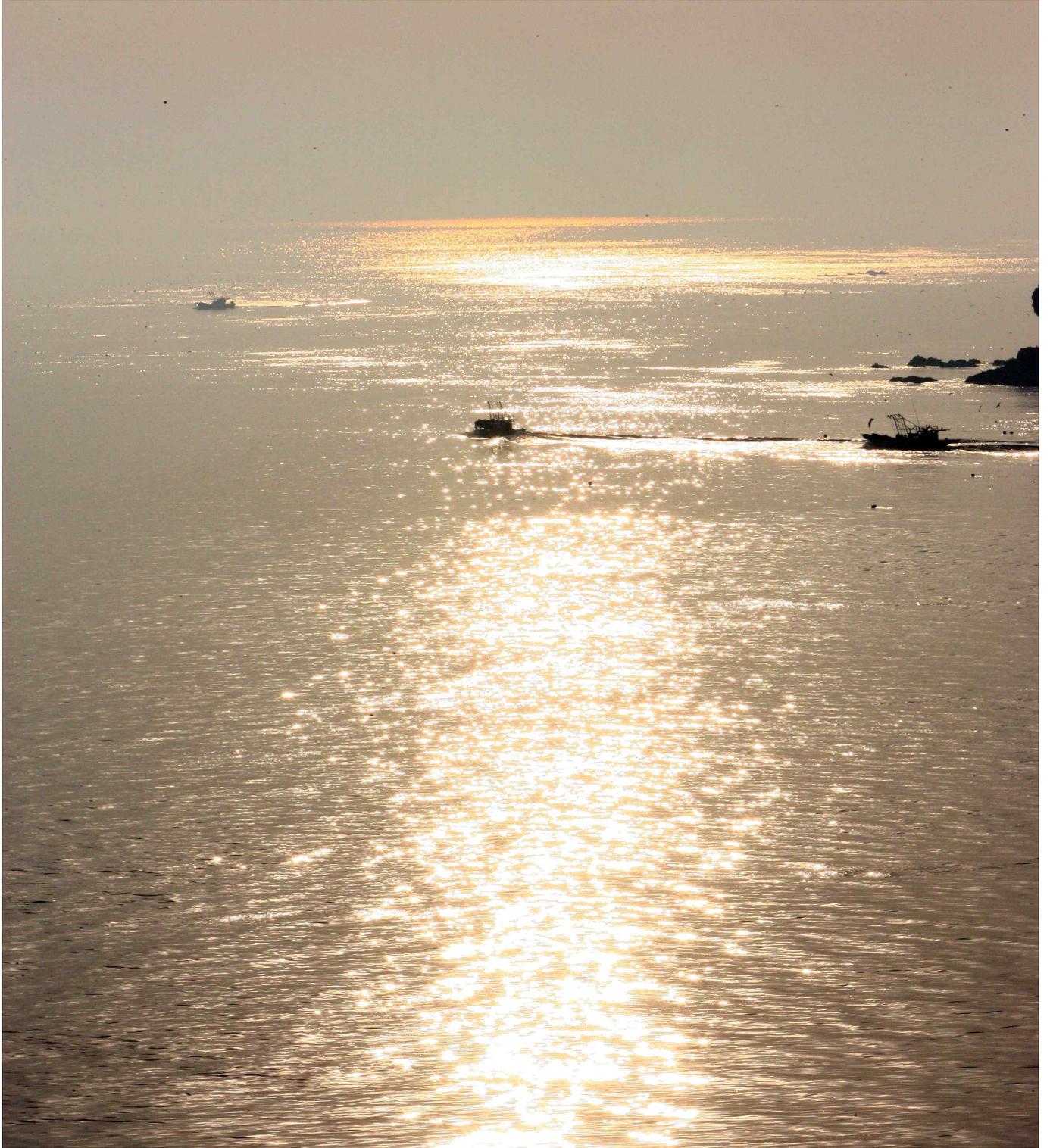
용진군 의회 홈페이지(www.ongjin.go.kr/council)에는 의회소개, 의사일정, 의장 및 의원 소개, 역대의원 현황, 의정활동 현황, 회의록, 의회에 바란다 등으로 구성되어 의회의 다양한 정보 열람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의회 소식지 발간

용진군의회회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해의 의정활동을 정리하여 군민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으며, 구독을 원하실 경우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의회 전화번호 안내

- 의장실 : 032)899-3002
- 부의장실 :032)899-3003
- 의원실 : 032)899-3011~3015
- 의회사무과장 : 032)899-3020
- 의회사무과 : 032)899-3031~3035
- 전문위원실 : 032)899-3040~3042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http://www.ongjin.go.kr/council>

■ (402-700)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 전화 : 032)899-3030

■ 팩스 : 032)899-3039